

큰 지향점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장생불사의 도를 얻는 손오공

술의 문을 거부당한 수보리 조사님, 다음 카드를 차례로 내놓으신다.

“흠, 유(流)자문은 어떠냐? 유가, 불가, 도가, 음양가, 목가 같은 것들인데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그럼 그걸로 장생불사할 수 있나요?”

“좀 힘들게다. 벽속에 기둥을 세우면 좀 튼튼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썩어서 무너지게 마련이지.”

“그럼 그것도 싫네요”

“그럼 정(靜)자문은 어떠냐? 항상 고요하고 깨끗함을 위주로 하여 참선하고 좌관(坐觀)하는 등의 공부하는 것인데”

“장생불사는요?”

“급지 않은 흙벽돌이 물에 젖으면 쉬 허물어지는 것 같아 좀 부실하지”

“그것도 싫어요!”

“그럼 동(動)자 문은 어떠냐? 음(陰)을 취하여 양(陽)을 돕고 배움을 문질러 기를 기르고 여인의 월경을 이용한 약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장생불사는요?”

“물속 달을 건지는 격이라 헛수고에 그칠 뿐이지”

“싫네요!”

“에잇! 돼먹지 못한 월승이 놀아!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도대체 어찌하는 거냐!”

수보리조사 발연대노하고 계척(戒尺)으로 손오공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집 지고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 다른 제자들 수근수근

“저 월승이놈 욕심만 많아 조사님 성질을 돋웠구나”

야단치고 흥보고... 그러나 손오공, 집착이 가는 게 있다. 세 번 때린 것은 삼경을 가리키는 것이요, 뒷집 지고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무도 없을 때 뒷문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겠어?

가슴이 두근두근, 홀로 삼경을 기다린다. 뒷문으로 가니 역시 문이 열려 있어 조사님 앞에 나가 절하고 장생불사의 도를 청한다. 조사님 정말 기쁘고도 기쁘다.

이렇게 명민한 월승이, 암시를 알아채고 오니 정말 연분이 있구나.

이리하여 드디어 손오공! 수보리 조사의 진전을 이어 장생불사의 도를 얻게 되도다.

이죠. 네 가지 큰 지향,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불자라는 증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불자들이 때면 법회 때 마다 끝날 때 사후 서원을 하고, 너무도 거룩한 서원이라서 세속에 가리고 나가기가 죄스러운지 바로 부처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목표는 절에 와서 한번 꺼내두고, 세속에서는 세속적 목표에 매진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불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언제나 네 가지 큰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 큰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바로 진정한 불자인 거지요.

물론 손오공은 아직 불교적인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하였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추구를 일으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이죠. 그거야말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고요? 글썩요, 그건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장생불사라는 목표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목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지 장생불사는 아닙니다. 이 차이에 대하여는 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무튼 손오공은 조그만 이익이라든가 신통력 같은 것은 거부하고 시종일관 장생불사를 외칩니다. 첫 번째 술의 문을 거부하고 수보리 조사가 줄줄이 제시하는 여러 길들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뭐 좀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길들이 다 들어있는 거 같지 않나요?

우선 유(流)자문부터 볼까요?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하는 모든 사상들이 다 여기 들어가네요. 삼교구류(三教九流)란 표현을 쓰던가요? 삼교는 보통 유불선(儒佛仙)을 말하고 구류는 기타 여러 사상이나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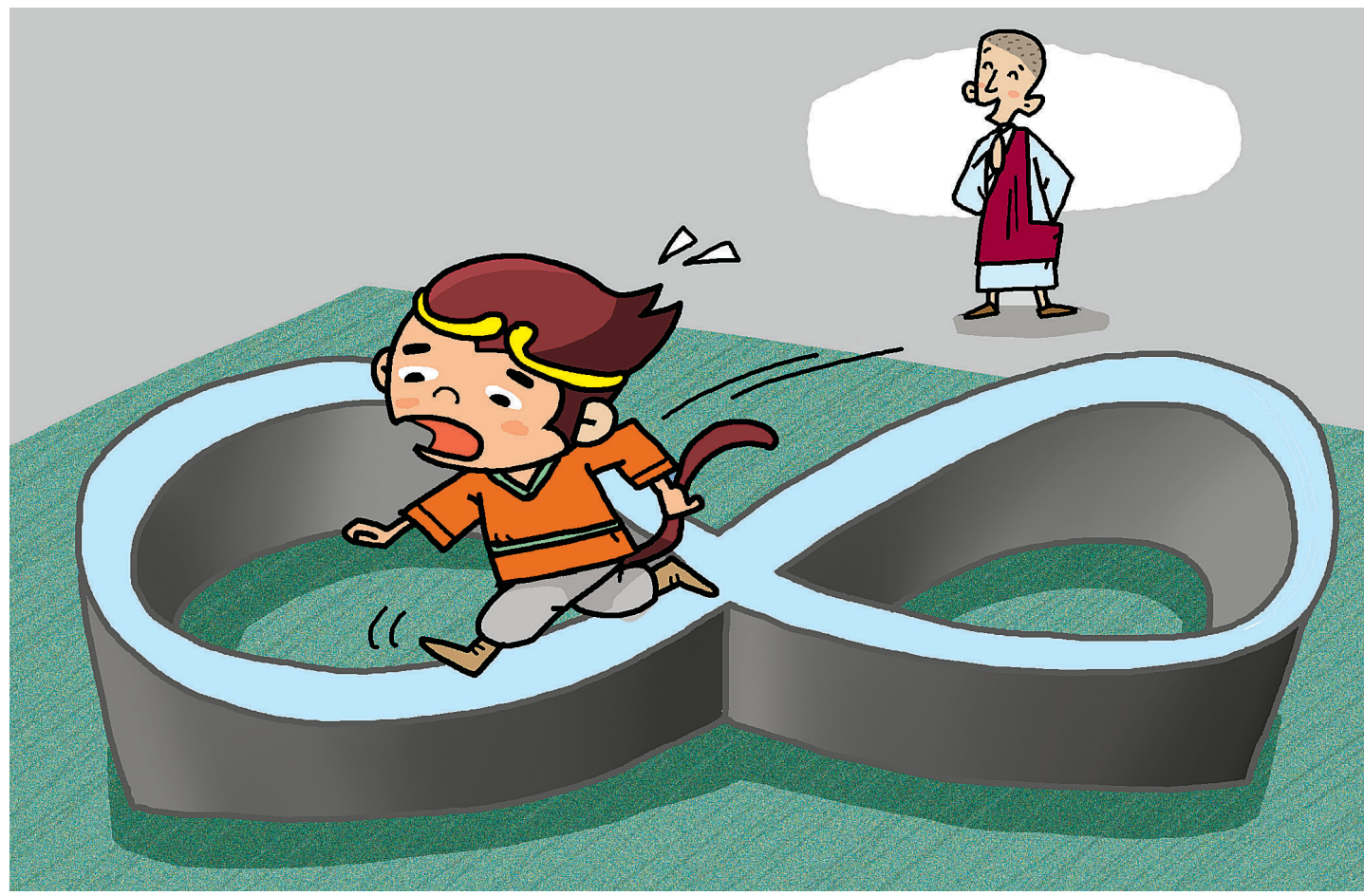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후서원을 향한 정진이 불자 증거 진리의 깨달음이 불교의 목표 손오공, 장생불사의 도를 원해 수보리 “술법 전수는 구도의 시작”

파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유(流)자문이라 하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불교도 들어가고 도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유기가 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들을 유자문에 넣어서 폄하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화된 종교나 사상으로서의 유교, 불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조사의 설명을 보세요.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등등...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장생불사를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하지요. 그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흙 벽속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네요. 벽을 지향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썩어서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다음은 무엇인가요? 정(靜)자문이네요. 세속에서 행하는, 주로 정적인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불교나 도교의 참선, 좌관 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구요. 그런데 수보리조사의 표현은 이것도 굽지 않은 벽돌과 같대더군요. 비법을 제대로 담지 못한 정적인 수양만으로는 결코 장생불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동(動)자문이죠. 정과 반대로 움직임을 통한 수양을 말하는 거네요. 여기에 방중술도 들어가고 비약을 만들어 먹는 방법도 들어가고, 동적인

수양을 통해 기를 축적하는 방법들도 들어가는군요. 태극권(太極拳) 같은 권법은 동공(動功), 즉 움직이며 하는 수양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군요. 중국에서 유행하다 박해를 받는 파룬공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보리 조사는 이런 공부는 물 속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깎아내리고 있군요.

허 참! 다 관량은 공부라 될 것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혹시 수보리 조사 심보가 본디 좀 괴악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시듯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서유기의 중대한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유기의 배경은 불교가 주가 되고 도교가 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불교는 궁극적 목표이고,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 버금가면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가장 큰 길,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도교인데요. 그 도교 가운데서도 바로 금단대도라는 정통의 수양만이 장생불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설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죽 들어 보인 술자문, 유자문, 정자문, 동자문 등은 그 정통이며 왕도라 할 수 있는 금단대도의 비밀스런 가르침을 담지 못한 이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길들에 대하여 손오공은 “그걸로 장생불사할 수 있나요?” 하는 물음을 던지고, 안된다고 하자 가차 없이 거부하죠. 그리고 수보리 조사 발연대노! 계척(戒尺): 스승이 제자를 훈육할 때 쓰는 도구, 또는 불교에서 의식의 진행을 위해 쓰는 도구)으로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집 지고 들어가셨다! 여기서 좀 견문이 넓은 분들은 펄쩍 생각이나는 이야기가 있으실 듯 하죠?

육조 혜능과 오조 홍인 스님의 이야기죠. 홍인대사가 대중에게 깨달은 자 아니면 와서 고하라 하니 신수대사가 계승을 지어 벽에 붙이죠. 身是菩提樹(신시보리수) 心如明鏡臺(심여명경대) 時時勤拂拭(시시근불식) 勿使惹塵埃(물사야진에) 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대(臺)이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혜능행자가 이에 대하여 다른 계승을 지어 써 붙이죠. 菩提本無樹(보리본무수) 明鏡亦非臺(명경역비대) 本來無一物(본래무일물) 何處惹塵埃(하처야진에) 깨달음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이라 해도 또한 대(臺)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티끌 일어나리! 홍인 스님, 나오셔서 집짓 되어먹지 않은 글이라고 문질러 버리고는 저녁 무렵 슬그머니 혜능 행자 디딜방아를 쪼고 있는데 오시죠. 홍인대사: “방아는 다 쪼였느냐?” 혜능 행자: “예, 방아는 다 쪼였는데 키질을 하여 알맹이와 쪼적지를 가리지 못하였습다” 홍인스님: 지팡이로 방아공이를 세 번 두드리고 뒷집 지고 가시다. 이에 혜능행자 삼경에 뒷문으로 홍인스님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은 뒤, 부처님 이래 전해 내려온 의발을 전해 받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대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자, 그럼 서유기의 저자와 육조단경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누구 것을 표절한 것일까’가 문제이네요. 요즈음 표절 시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누가 누구 것을 표절했는지 결단코 밝혀서 철저히 응징하고, 표절자는 모든 공지에 나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이런 이야기에서 표절 시비하자면 정말 너무나 많아서 곤란해한다는 말씀! 예를 들어 인도의 여러 성인들 탄생설화는 매우 비슷비슷한 것이 많대네요. 지난 성인의 탄생에 얽혀있던 설화가 다른 성인의 탄생설화에도 비슷하게 붙는다면 하는 것들도 있죠. 예수님 탄생과 부활의 설화도 이집트와 중동 권의 여러 탄생, 부활설화와 비슷한 것이 많대네요. (이 문제에 당혹한 기독교 교부들이 이를 악마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미리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는군요) 이런 것들도 표절이라 할까요? 이와는 좀 다르지만 여기 서유기와 육조단경의 이야기도 적절한 이야기를 적절히 써먹는 훌륭한 응용이라 보아야겠지요? 결단코 이것은 표절시비의 대상 아닙니다. 남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을 슬그머니 제 것처럼 쓰는 비양심과는 구별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본디의 목적을 잊지 않고, 조그만 같 림길에 빠지지 않은 손오공! 수보리조사가 내놓은 수수께끼의 관문까지 돌파하고 드디어 장생불사의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일러 금단(金丹)의 큰 길이라! 도교 수양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도교와 선도 수행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네요. 불교와 대비되는 도교의 수행법을 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 뵈겠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에게는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 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